

# KIA 박찬호 부상 이탈... 톱타자 빈자리 김도영이 채운다



KIA 타이거즈 공격에 악재가 생겼다. 뜨거운 타격의 '선봉장' 박찬호가 손가락 부상으로 타석에서 이탈한다.

KIA 김종국 감독은 1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앞서 박찬호의 부상에 대해 "왼손 4번째 손가락 인대 손상이 있다. 스타팅은 힘들다. 대수비, 대주자 요원으로 넣을 것이다"며 "관리하면서 체크를 해야 할 것 같다. 관리하면서 타격은 천천히 단계별로 밟아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박찬호는 12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에서 5회 땅볼 타구를치고 1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가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검진 결과 손가락 인대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타격까지 가능한 정도로 회복하는 데 3주 가량이 필요할 전망이다.

KIA 입장에서는 아쉬운 톱타자의 이탈이다.

박찬호는 올 시즌 115경기에 나와 41타수 125안타(3홈런)를 기록하면서 0.302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48타점을 만든 박찬호는 29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64득점도 올리고 있다.

집중력 있는 타격으로 공격의 물꼬를 터온 박찬호는 수비에서도 내야의 핵심 선수다.

열정이 넘쳐 입은 부상이라 KIA 입장에서는 더 아쉽다.

김종국 감독은 "선수들한테 강조하는 게 비디오 판독도 있으니까 헤드퍼스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몸이 급해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몸이 알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며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1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은 메이저리그에서도 금기시한다. 본인도 모르게 나온 슬라이딩인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타석에서 공격의 시작점이 됐던 톱타자가 부상으

슬라이딩하다 손가락 인대 손상 타석 대신 대주자 역할 등 기용 김도영 최근 10경기 3할대 맹타 "타순 상관없이 제 역할 하겠다"

로 한 발 물러나있게 됐지만 박찬호는 발로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박찬호는 "대주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겠다"면서 그라운드에서 팀 승리에 기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찬호가 자리를 비우면서 김도영이 가장 먼저 타석에 서서 공격을 끌고 가게 된다.

김종국 감독은 김도영의 리드오프 기용을 언급하면서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타순에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투수과 상대하면 될 것 같다"며 "멘탈도 좋아진 것 같다. 타순 의식하지 않고 출루에 신경 쓰면 좋겠다.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도영은 13일 경기 전까지 최근 10경기에서 41타수 13안타, 0.317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3개의 홈런으로 12타점을 만든 김도영은 6개의 삼진을 기록했지만 8차례 볼넷도 끌라냈고, 실패 없이 6개의 도루도 성공시켰다.

톱타자로 나서게 된 김도영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지만 책임감이 더 생겼다. 찬호 형의 빈 자리까지 내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잘 해보도록 하겠다. 타격감은 괜찮다"며 "1, 2번 차이는 없다. 1회 때 먼저 나가는 것만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다. 공도 잘 보여서 공도 잘 끌라지고 이제 적응해서 타격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알고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톱타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찬호



김도영

## 전남도청 여자펜싱, 전국남녀선수권 '금 3'

에베 단체전·김향은 개인전 우승 최세빈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 유단우 동메달 등 4명 국대 선발

전남도청 펜싱팀이 제28회 김창환배 전국남녀 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남도청 펜싱팀은 지난 3-8일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유진실·김향은·박소형·유단우는 여자 에베 단체전에 출전해 16강서 전남여고를 45-25, 8강서 한국체대를 45-29, 준결승서 부산시청을 45-40으로 연파한 뒤 결승서 강원도청을 접전 끝에 37-36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향은은 여자 에베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김향은은 신현아(화성시청), 박세림(한국체대), 공주는(화성시청), 임주미(경기도청), 이지희(충북도청)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랐고 결승서 이지영(계룡시청)을 15-11로 물리쳤다.

유단우는 여자 에베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했다. 유단우는 선재희(경남대), 양현모(한국체육대), 김시은(전남도청), 강영미(광주 서구청)를 연파하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이지영에게 11-12로 아쉽게 졌다.

최세빈은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최세빈은 나채린(수일고), 김하은(서울시청), 김지영(안산시청), 윤지수(서울시청), 서지연(안산시청)을 차례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제28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전남도청 펜싱팀. 왼쪽 왼쪽부터 김용을 감독, 유진실, 김시은, 박다은, 손정민, 전수인, 김수민 코치, 아랫줄 왼쪽부터 김향은, 최세빈, 유단우, 박소형, 김지현. <전남도체육회 제공>

대표팀 동료인 전하영(서울시청)을 15-10으로 이겼다.

에베 종목의 김향은과 유단우, 박소형, 사브르 종목의 최세빈은 이번 대회 포함 4차례의 국가대표 선발전 포인트 합산 결과 종목별 상위 8명 안에 들면서 2024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김용을 전남도청 펜싱팀 감독은 "좋은 성적과 국가대표에 승선한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한 달 남짓 남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매치 휴식기 숨 고른 광주FC FC서울 상대 상승세 이어간다

17일 K리그1 30라운드 원정경기 대표 차출 4명 활약 마치고 복귀

광주FC 대표 선수들이 뜨거운 A매치 휴식기를 보냈다.

K리그1 30위에 자리한 광주는 17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을 상대로 K리그1 2023 3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3일 울산에서 열린 2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이 건희와 배가의 골로 2-0승리를 거두며 9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렸다.

1위팀 울산현대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만들었던 광주는 A매치 휴식기를 맞아 잠시 숨을 골랐다. 차분하게 서울전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에서는 바쁜 시간을 보낸 '대표 선수'들도 있다.

이번 A매치 기간 4명의 선수가 나라를 대표해 뛰었다.

김호고 시절부터 연령별 대표팀에서 꾸준히 활약을 해온 엄지성과 허훈은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돼 AFC U-23 아시안컵을 소화했다.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의 첫 관문이었던 이번 일정에서 엄지성과 허훈은 카타르, 키르기스스탄, 미얀마의 경기에 모두 출전해 대표팀의 공적을 책임졌다.

이순민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안고 광주로 돌아

온다. 유럽 원정 친선경기에 나설 남자 A대표팀 25명 명단에 포함되면서 '클린스만호'에 승선한 이순민은 지난 8일 새벽 진행된 웨일스와의 친선경기에도 교체 멤버로 투입돼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이순민은 13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도 교체 멤버로 나서 두 번째 A매치 경기를 소화했다.

앞서 이순민은 지난 7월에는 '쿠판플레이 시리즈' 팀 K리그에 발탁돼 세계적인 명문 구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결승골까지 장식하는 등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원발의 달인' 아사히는 골맛까지 봤다. 알바니아 국가대표인 아사히는 지난 11일 폴란드와의 유로 2024 예선 E조 경기에서 중거리포를 가동하면서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아사히는 6월에도 몰도바와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알바니아의 2-0 승리 주역이 됐다. 광주대표 선수들의 질주는 '살림꾼' 정호연이 이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발탁된 정호연은 창원 훈련을 소화한 데 이어 13일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로 이동했다. 15일까지 파주에서 훈련을 소화하는 정호연은 16일 금메달 사냥을 위해 대표팀 선수들과 출국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LOTTE CINEMA | 증장로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9.15-16 광주예술의전당 원형광장 19시 30분
극단 코끼리들이 웃는다
Deutsches Radio Philharmonie
2023.09.16 17:00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